'전남행복버스', 3년간 지역 오지마을 500곳 찾았다

장성 작동마을서 기념행사·사진전
의료 등 사회서비스 취약 마을 방문
주4회 보건·복지·문화 프로그램
2021년 이후 도민 1만6천명 혜택

장성 진원면 작동마을에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의 500번째 마을 방문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남도 제공

교통, 의료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부족으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건·복지·문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마을 방문 500번째를 맞았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500번째 마을 방문을 맞아 이날 장성 진원면 작동마을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정철 전남도의원, 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기탁받은 꾸러미를 증정했다. 마을회관 옆에서는 지난 3년여간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지난 2021년 8월 첫 운행을 시작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운영 초기 코로나19 선별검사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지난 2년 11개월간 도서산간 오지마을 7만5000㎞를 달리며 도민 1만6000여 명을 만나 12만3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도민 호응에 힘입어 올 들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도 20종에서 26종으로 알차게 꾸렸다.

추가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키오스크 교육 △치매 예방 스마트 게임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등이다.

주요 수혜자인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강화했으며 일상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민원 접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도립국악단 △전남도지체장애인협회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초당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오고 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방문을 바라는 마을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재능기부자 모집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미용, 문화공연, 현장 운영 등 봉사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전남도사회서비스원(061-287-8152)으로 연락해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보건복지국장은 "찾아가는 서비스 차량 중 전남행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주 4회로 가장 많고 프로그램 종류도 다양하다"며 "현장 운영에 애쓴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남 6200여 마을 모두에 행복을 전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국내 다수 주요 언론사로부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가치로 집중 관심을 받고 있으며, 타 광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마을 단위 사회서비스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경찰, 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광주시·자치경찰위·교육청 협력
표어·동영상·숏폼·웹포스터 등

광주경찰,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교육청이 피싱범죄 예방·대응 요령 등을 주제로 '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15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피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은 오는 8월16일까지 걸쳐 표어(슬로건), 동영상(숏츠, 릴스), 웹포스터·카드뉴스 3개 부문에 대해 진행된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광주경찰 홈페이지(www.gjpolice.go.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협력에 참여한 기관들은 피싱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피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하고자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피싱범죄'는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성 사기범죄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또는 지인 등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피싱범죄로부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피싱범죄 예방 홍보효과 증대와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김은지 기자

남구, 백운광장 '공영주차장·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도시재생 마무리… 94억원 투입
차량 154대 동시 수용·경제 활성화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를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완성하기 위해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 대형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은 민선 7기부터 추진한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매듭짓는 사업으로 94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다.

대형 공영주차장은 오는 9월부터 착공돼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 예정이다. 주차장 전체 면적은 차량 154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약 554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완공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은 490㎡ 크기로, 지상 1층에 자리를 잡는다.

건립 공사는 공영주차장 착공 후 내년부터 진행하며, 완공 시점은 내년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성되면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활성화로 생산 농가의 투자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남구는 백운광장 경제활성화의 정점을 찍는 시설인 만큼 마지막 과제인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민들이 고화질 예술작품을 제공하는 미디어월과 푸른길 브릿지에서 체험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아나바다 장터, 스트리트 푸드존 및 토요 야시장을 즐기기 위해 백운광장을 많이 찾고 있어 주차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광장 일대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방문객이 증가했다"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경제 활력까지 샘 솟는 백운광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